

6·13 지방선거 막바지 혼탁 과열 극심

‘식사 접대·돈 봉투까지’ 불·탈법 선거 난무 전남경찰, 선거사범 160건·300여명 수사

6·13 지방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주요 격전지에서 후보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흑색선전 및 각종 유언비어 등이 나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선거전 막판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작 등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5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1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39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론 허위사실공표 13건, 인쇄물

을 이용한 불법행위 11건, 공무원 선거 개입 6건, 기부행위 4건, 시설물 설치 5건, 집회·모임 이용 1건, 기타 13건 등이 다.

전남은 206건 가운데 3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4건 이첩 169건은 경고조치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과거와 달리 금품을 주고받는 기부행위 위반보다 일명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공표가 크게 늘었다.

특히, 주요 격전지에서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이 횡행하고 있다.

광주에선 동구와 서구가 선거 막판까

지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최근 민주평화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가 실제 10억원의 채무가 있는데도 김 후보측에서 문자메시지로 “빚 없는 동구를 만들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측은 “10억원을 의회에 변제승인요청 중이다”는 내용을 덧붙여 공보물을 발행해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바른미래당의 허위사실 유포 고발은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구에선 인사 청탁·사업수주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후보자간 고발로 이어졌다.

전남에선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등 혼탁양상

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순천에서 특정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시의원 예비후보인 B씨와 같은 계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에게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함평에선 예비후보 한 명이 사조직 식사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신안에선 지난달 한 주민이 이웃 20여명을 모아 음식대접을 한 것을 놓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 지역 일부 민주당 후보와 선거구민 간의 일명 ‘용봉탕 회식’ 역시 경찰이

조만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로 전남경찰청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총 300여명, 160여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비를 가리고,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자 경찰과 검찰, 선관위가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법원서 아내에게 염산 뿌려 목포경찰, 50대 남편 긴급체포

목포경찰서는 지난 8일 아내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9)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께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원실 주변 휴게장에서 아내 B씨(45·여)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열골·팔 등지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문제 법원에서 만나 다투다가 염산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8일 새벽 1시 7분께 A씨를 순천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카레이서에게 안전운행 배운다

소방청은 11일부터 이틀간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검수센터에서 119구급차 운전요원 60명을 대상으로 구급차 안전운행 교육훈련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훈련은 최근 5년간 구급차 교통사고가 연평균 250건 발생하는 등 긴급출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구급차 운전요원의 안전운행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자동차 특성 및 원리에 대한 이론 교육과 돌발상황 회피, 차량 무게중심 이동에 따른 안전운행 등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고독사 국가유공자 현충원 안장

경찰, 보훈처에 안장 등 신청 도와

군복무시절 총기 난사사건 트라우마로 술에 의지해 살던 50대 국가유공자가 원룸에서 숨진 지 한 달만에 발견됐다.

고인은 수년간 연락 끊긴 유가족을 대신해 장례를 준비한 경찰의 도움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1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 서구 쌍촌동 이모씨(57)가 사는 원룸에서 약취가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원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심하게 부패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원룸 관계자 진술과 시신 상태를 미루어 볼 때 이씨는 약 한 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는 군 복무시절 여러 명이 숨진 내무반 총기 난사사건으로 총상을 입어 국가유공자에 등록됐다. 당시 입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5년 전 아내와 딸을 둔 채 집을 나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원룸에서 술을 마시며 지내왔다.

남편 사망 소식을 접한 이씨 아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장례비조차 낼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하소연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발견한 경찰은 유가족을 대신해 국가보훈처, 국립현충원, 병무청 등에 문의하며 장례 절차를 준비했다.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을 통해 장례 지원비와 사망 일시 지원금 160만원을 받아 유족에게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보훈처에 신청했고, 보훈처를 이를 승인했다. 이씨는 9일 오후 대전현충원에 묻혔다.

/김종찬 기자



지하철서 선거 캠페인

10일 오후 광주시선위 관계자들이 선거참여 홍보 문구가 랩핑된 광주지하철에 탑승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사업

전남조리과학고·여수정보과학고 선정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18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사업에 도교육청을 비롯해 2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최종 선정 사업단은 도교육청과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사업단이며, 교육부로부터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해외 업무협약 교육기관에서 의사소통 교육, 직무교육 및 산업체 현장학습, 주말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10~12주간 현장실습과 직업체험이 이루어진다. 또 다양한 실습과 체험으로 전문기술을 익히고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학교사업단을 포함해 지난 2016년에 184명, 2017년에 74명의 학생을 해외에 파견해 국외 취업 87명을 확정했다. 특히, 교육부 주관 성과보고회에서 2015~2017년 3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교육부 공모사업 참여와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7년째 점진적으로 확대해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1위를 달성 하는 등 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가짜 귀금속 판매, 3인조 일당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가짜 귀금속을 전당포에 팔아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0)·김모씨(26)·최모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께 광

주 북부 우산동 한 전당포에 가짜 목걸이를 41돈을 18K 금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팔아 650만원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가짜 귀금속을 전당포에 처분해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종찬 기자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1억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